

## 프로페셔널리즘을 지향하는 동덕여자대학교

조 원 영 | 동덕여대 총장

### 뉴 밀레니엄에 도전하는 90년 전통

동덕여대는 여성 교육을 선각하신 춘강 조동식 선생에 의하여 1950년에 설립되었다. 춘강 조동식 선생은 암울한 일제의 강점기인 1910년 국권 회복을 위하여는 인재 육성 특히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선각하여 동덕여자의숙을 세웠다. 이렇게 동덕여대는 우리 나라 최초의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한 여성 민족 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학의 역사는 50년이지만 동덕인들은 90년의 뿌리를 가진 여성 교육의 산실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

현재 7천 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만5천여 졸업생을 배출한 동덕여대는 1990년대 들어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 8개 단과 대학, 8개 대학원 및 각종 부설 연구소와 부속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인간화 교육, 전문화 교육, 사회화 교육, 세계화 교육의 이념에 입각하여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동덕여대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대표할 명문 여성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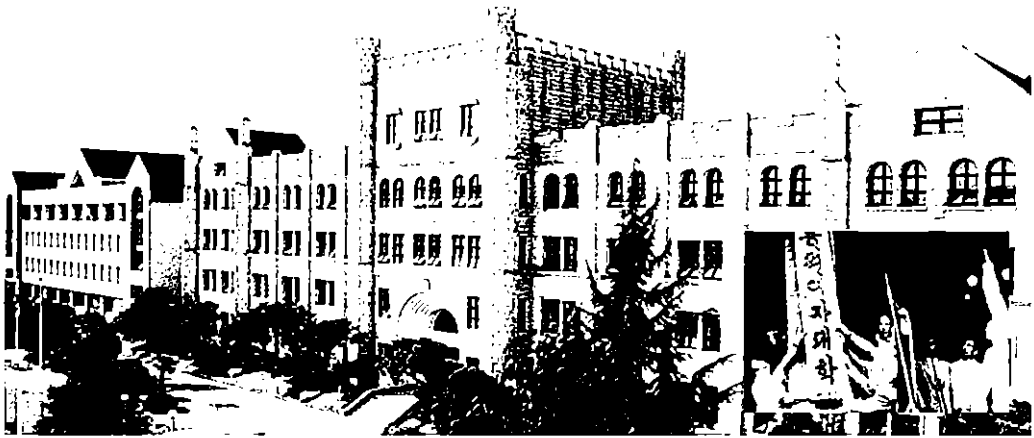
### 프로는 강하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지향하는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에 전화하면 맨 처음 들을 수 있는 문구이다. 학교를 둘러보고 구성원들을 만나면 이 말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덕여대의 그간의 이미지는 ‘작고 조용한 여자대학’이었다. 하지만 동덕인들은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을 외치고 있고 그 외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덕여대는 양적인 팽창이 미덕이던 시대에도 몸집 불리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원칙에 입각하여 한 걸음씩 세심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 대학들이 개혁을 추구할 때 전혀 색다른 형태의 변신을 시도해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청담동 로데오 거리의 디자인연구센터, 동숭동 대학로의 공연예술센터, 인사동 화랑가의 동덕아트갤러리 등에서 현장 교육을 습득하는 실용화 정책 즉 프로페셔널리즘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





동덕광장

것이다.

### 도심(都心)을 파고드는 현장·실용 교육 로데오 거리의 디자인연구센터

특성화 교육의 핵심은 현장성과 실용성이다.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1996년에 패션 1번가인 서울 청담동 로데오 거리에 디자인대학을 설립했다. 방대한 분교를 설립하여 학생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대학과 인기 높은 도심 속의 작은 대학, 이 둘 중 어느 쪽이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해법인지 이미 명확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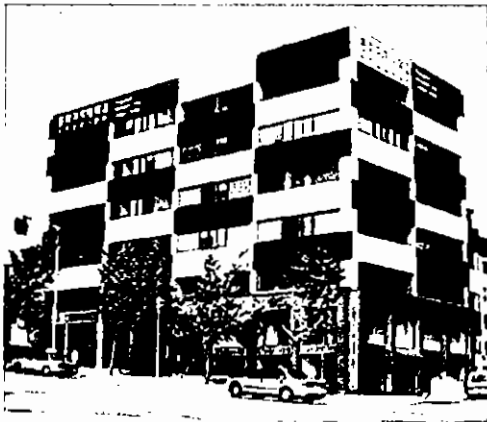
실제로 디자인대학에 대한 외부 평가도 좋아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1999년 전국 대학 평가 의류 의상학과 부문 평판도에서 이화여대,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동덕여대는 4위를 차지했다. 유수의 대학을 제치고 선두 그룹에 나서게 된 것은 단순히 도심에 자리잡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의상디자인, 산업디자인, 컴퓨터디자인 세 전공 분야에 교수들 21명 확보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학들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없었

으며, 동덕여대는 다른 대학이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은 적극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은 순간 순간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등하교 하면서 유행트렌드를 직접 느낄 수 있다. 또 주변의 유명 디자이너들의 매장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한다. 처음에는 주변 매장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드나드는 것을 귀찮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행사가 있으면 도우미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가 되었으며 학생들이 유명 디자이너들의 신제품 발표회 때 작업을 도우면서 공부도 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학로의 공연예술센터

동덕여대는 4년제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방송연예전공과 실용음악전공을 개설하고, 체육학과의 무용전공을 무용과로 분리하여 1998년에 공연예술대학을 설립했다. 현재 동송동에 2개의 공연장과 최첨단 시설로 이루어진 방송 스튜디오, 각종 실기 실습실을 구비한 지하 4층 지상 8층의 공연예술센터를 건립 중이다. 올 10월에 완공되면 공연 예술



디자인센터



공연예술센터

의 메카 동승동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는 현장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 제휴와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공연예술대학이 동승동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디자인대학 못지 않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00% 취업을 자랑 IT 정보 여성 전문가 배출

동덕여대는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미래의 취업 분야 중의 하나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라는 판단 아래 1995년에 정보과학대학을 신설, 현재 900여명이 재학 중이며 여자 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인 200여명 이상이 매년 정보과학대학에서 배출되며 100% 취업되고 있다. 멀티미디어와 콘텐츠, 웹프로그래밍, 인터넷 기술 등 산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응용되는 교육을 하여 우수한 IT정보 여성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 여성학의 보고(寶庫)

동덕여대는 1995년에 여성 전문 서적을 갖춘 우

리 나라 최초의 여성학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1998년에는 여성학센터를 설립했다. 지상 5층의 여성학센터에는 여성학도서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박물관, 교육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단독 건물로 여성학센터를 설립한 것은 동덕여대가 처음이다. 1999년 학술, 취업 정보, 여성 관련 사이트를 총 망라하는 정보망을 구축하였는데 여성학 관련 논문을 원문으로 서비스하는 대학은 동덕여대가 유일하다.

여성 단체와 연계하여 연구 활동과 출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성계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학술 대회와 여성 창업 강좌, 여성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프로를 키우는 최고의 교수진

실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교수로 대거 초빙했는데 일반인들이 알만한 교수로는 소설 "경마장 가는 길"의 작가 하일지(문예창작 전공), 재즈피아니스트 김광민(실용음악전공), 텔런트 홍유진(방송연예전공), 패션모델 김동수(스포



동덕아트갤러리

츠모델전공)씨 등이 있으며 산학 협동을 위해서 외부에서 이영희(이영희 한국의상연구소 대표), 이신우(오리지날 리 대표), 이영혜(디자인하우스 대표), 김광규(서울아트디자인 대표) 씨 등도 초빙했다. 이들을 비롯한 다수의 현장 출신들이 동덕여대에서 실용 학풍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을 아는 젊은 교수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대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모델이 전혀 없는 가운데 현장 캠퍼스를 실천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 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대학 학점당 등록금제 국내 최초 실시

올해 동덕여대는 국내 최초로 학점당 등록금제를 실시하였다.

동덕여대가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1998년부터 시행된 학부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 과정, 자유 선택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방법이 제공되면서 기존의 정액 등록금 제도로서는 수강 신청 학점과 수강 신청 과목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등록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것

“

천년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력 넘치는 여성 전문인을 키우기 위해  
실용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생생한 현장학습을 통해 살아 있는  
참된 교육을 실시하는 동덕여대

”

이다.

동덕여대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2001학년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진적으로 3, 4학년 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학점당 등록금제는 현재 국내 여러 대학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위하여 연구, 준비중이지만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는 동덕여대가 최초이다.

동덕여대는 학점당 등록금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정액 등록금제의 문제점 해소와 더불어 향후 수오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졸업생 재교육' 제도를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도입하여 졸업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끝까지 책임지는 기회로 삼아 대학의 역할을 졸업 이후까지 확대시킨 것은 동덕여대만의 자랑이다.

이러한 특성화 노력의 결과 동덕여대는 199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실시한 대학종합평가에서 교육, 사회봉사, 교수·시설, 설비영역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1999년 대교협에서 실시한 대학원 평가에서도 수업 및 논문 지도, 시설·설비 영역에서 우수대학원, 교수, 재정·경영 영역에서 최우수 대학원으로 선정되었다. **☞**